

종이와 잉크, 풀로 빛은 아름다운 정신과의 만남

이광주의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을 읽고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혹시라도 나 자신이, 아니 내 정신이 디지털화해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날이 온다 해도, 그때까지 나도 종이책을 사랑하고, 변론을 해줄 작정이다.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을 읽으면서 더욱 그 마음을 굳혔다. 이 책에서 나는 지은이와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까지 읽어낼 수 있었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창조했다고 느꼈다.

책, 아니 그보다는 훨씬 좁은 범위의 금서, 그것도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금서를 주로 연구하는 나는 책을 말하는 책을 만나면 특히 반갑다. 지은이의 지적 호기심, 깊은 연구, 삶의 향기가 묻어 있고, 게다가 굳이 글을 읽지 않더라도 아무 데나 펼쳐서 만나는 사진을 보는 재미까지 곁들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한 책이라면, 더욱 고맙고도 반갑다. 마치 아름다운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난 듯하며, 예쁜 그릇에 담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것 같은 책이라면 더욱 그렇다. 나는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한길사)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종이책의 종말에 대한 이유 있는 항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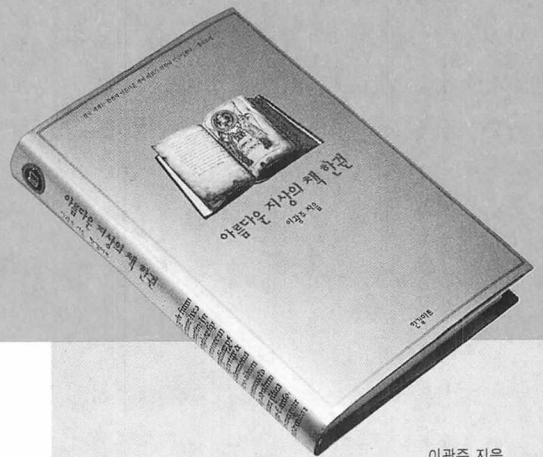
지은이가 말하듯이, 《출판저널》과 《책과 인생》에 약 1년씩 연재한 글을 정리해 묶은 것이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에 실린 글이다. 잡지에 조각조각 실렸던 글이 한 덩어리로 통일성을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책을 옷이나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옷이나 그릇 정도로 축소할 수 없다. 옷을 벗으면 알몸이 드러나고, 음식을 먹고 나면 그릇만 남는다. 그러나 책은 그렇지 않다. 똑같은 내용이 《출판저널》에 있고,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매

체는 담고 있는 내용과 혼연일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검색할 내용을 잠시 불러다 읽는 디지털 시대의 매체처럼 일종의 껍데기같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이라는 물질은 지은이가 쓴 글을 잉크와 종이로 반죽해서 빚어낸 것이다. 내용을 읽고, 또 읽어도 책은 그대로다. 단지 시간 속에서 닳고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닐까?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을 쓰고, 만든 모든 사람은 ‘하이퍼텍스트’ 때문에 종이책이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예언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디지털 세계가 열린다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나요? 아니면, 디지털이 반드시 아날로그를 죽일까요? 한 단계 높이 발전하면 그 앞 단계는 사라지는 것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사라지고 정신만 남아 전선, 전화선, 공중파에 실려다니는 날이 올 수 없듯이.”

혹시라도 나 자신이, 아니 내 정신이 디지털화해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날이 온다 해도, 그때까지 나도 종이책을 사랑하고, 변론을 해줄 작정이다.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을 읽으면서 더욱 그 마음을 굳혔다.

이 책에서 나는 늘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은이의 글을 읽고, 글과 관련된 그림을 읽고, 결국 이 책을 만든 사람들, 말하자면 글쓰이와 출



이광주 지음
한길아트/B6변형/344면/17,000원

판사 직원들의 정신까지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종이와 잉크와 풀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빚었으며, 우리의 삶마저 풍요롭게 창조하는 데 이바지했는지 느끼고 고마워할 수 있었다.

책이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흔 답아

세상이라는 큰 책, 성당이라는 책, 두루말이, 구텐베르크 이래 윌리엄 모리스 같은 사람이 정성껏 만든 아름다운 책, 아니 인쇄술 이전에 베리공이 만들게 했던 《시도서》 같이 예술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책, 심지어 사람 가족으로 장정한 책 — 사실 나도 콩테공의 상티이성에서 찰스 1세의 머리 가족을 붙였다라는 작은 책을 본 적이 있다 — 이 모두가 추상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체다. 그러나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날 수 없듯이, 추상적인 생각은 이들 매체와 함께 존재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의 동아리, 책으로 관행을 바꾸려는 사람들과 그들의 책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책이 불러일으키는 토론에 참여하면서 삶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때로는 잔잔하고 여유 있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흘러다니는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책이다.●